

# 전북자치도 별도 독자권역 반영 요청

### 전북상협, 제5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4+3 초광역권 반영 건의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3 초광역권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 익산, 군산, 전북상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5월 16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4+3 초광역권 반영 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연구원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이 반복되면서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전북은 180만 도민의 응어리진 한이 한데 뭉쳐 지난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쾌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별도 권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만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별도 독자권역으로 설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주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초광역 메가시티(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호남권)를 위한 전략 마련과 초광역권 중심 교통망 투자 및 권역별 1시간 생활권 구체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며, 국토계획의 가장 최상위 개념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초광역 메가시티 위주로 편성된다면 초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의 3대 특별자치권 지역주민과 상공인들은 이렇듯 특별자치도로 지역 발전에서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초광역권 중심 교통망 투자 및 권역별 1시간 생활권 구축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초광역

권역 발전계획의 4+3 권역을 발표한 것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만약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과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상 권역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정부계획간 정책적 혼란기중은 물론 국론 분열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전북, 강원, 제주 특별자치권역이 별도 독자권역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울리 김회장은 강원상공회의소협의회, 제주상공회의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4+3 초광역권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춘향농협 복숭아 농장에서 권태영 박사 주관으로 수출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 전북농협,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 농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일한 수출농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김명일)은 춘향농협 복숭아 농장에서 권태영 박사(전 경북농업기술원 국장) 주관으로 수출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이하 수출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출현장컨설팅은 5개 농협(춘향농, 구천동 무주, 지리산 남원농, 수출공신회 회원)을 25명 대상으로 수출 맞춤형 집중컨설팅을 11월까지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

수출농가는 농산물 수출관련 문 제점을 생애주기별로 고품질 재배 방법 및 병해충관리, 수확 후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농장안에서 1:1

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작년 수출현장컨설팅은 사인머스켓에 중점을 두어 수출에 적합한 수준의 고품질 농산물 육성에 집중했으며 전북산 사인머스켓을 홍콩, 캐나다, 베트남 등 해외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김명일 본부장은 "수출전략품목이 전략품목으로 그치지 않고 농업인의 신규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수출로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에 한걸음 더 앞장 설 것이다"라며, 또한 "전북농협의 농사일이(農事日) 실천을 위해 더 다양한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하림-육군부사관학교, 민·군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식품회사(주)하림과 육군부사관학교는 지난 14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정호석(주)하림 대표이사사와 육군부사관학교장 정덕성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호교류를 통해 안보 공간대 확산, 장비 사기진작과 민·군 유대강화, 군의 사회적 역할 제고 등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육군부사관학교는 하림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병영 체험 안보견학 및 안보 전문 강사 제공 등 안보 공간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하림은 맞춤형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 전역장병 취업지원, 위문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하림 공장견학 참여 등이다.

특히, 하림은 육군부사관학교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식품산업의 이해를 위해 하림 공장 투어 프로그램인 HCR(Harim Chicken Road) Tour에 장병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운영하기로 했다.

## '싱싱하게 더 오래' 만감류 능동형 시에이 저장 성공

### 농진청, 한라봉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 적용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17일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를 연다.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은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 기술이다.

연구진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약 80일 동안 저장 품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온으로 저장할 때보다



농촌진흥청은 전북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17일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를 연다.

정삼과 비율이 한라봉은 69.7%에서 89.3%, 천혜향은 62.2%에서 74.0%, 레드향은 75.4%에서 84.6%로 높아졌

다. 품종이와 무름은 한라봉에서 20%포인트, 천혜향에서 12%포인트, 레드향에서 9%포인트 적게 발생했다.

천혜향은 2개월 이상 저장하면 쓴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추가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하는 장기저장 농산물 품질 한계 예측 모형(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했으며,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장기적으로 만감류 연중 유통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동섭 LH전북본부장,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현장점검

김동섭 LH전북지역본부장은 LH+웰컴데이(입주자 사전방문)를 앞둔 군산시 오룡동 고령자복지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은 총 15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년 11월 착공 이후 금년 4월 준공했으며, 단지내 1,500㎡ 규모의 복지관이 위치하여 입주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요구에 맞추어 단차제거 등 무장애 특화설계를 갖추고 있다. 경사로 및 승강기, 안전시설 등 고령자들의 이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시

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번 웰컴데이 행사는 LH의 LH바로 처리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주예정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택의 하자 등을 점검 후 결과를 QR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입주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65세 이상이 입주가능한 주택으로 전북지역에서는 부안봉덕을 비롯한



김동섭 LH전북지역본부장은 LH+웰컴데이(입주자 사전방문)를 앞둔 군산시 오룡동 고령자복지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정읍연지, 고창율계동 3개단지가 운영 중이며, 금번 입주를 앞둔 군산오룡 외에도 강수군, 순창군 등에 추가로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 전북자치도,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전북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부문 판로 확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전시상담회는 도내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30여 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 간 일대일 상담으로 진행되며, 참여기업들에게는 자사제품을 전시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구매상담회 이외에도 도내 참여기업들에게 공공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전자입찰 교육과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주요조달 제도 및 공공구매 시범제도 안내 창구 등 별도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24년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홈페이지(www.공공구매.net)의 모집공고 안내문을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공공구매 상담회가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업성과와 나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